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9일(목)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환경기후 정 책 과	담 당 자	• 기후대응팀장 이태호 ☎440-8591 • 담당자 노금호 ☎440-859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5:0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위해 ‘영흥화력발전 조기폐쇄’ 반드시 필요

- 인천시, 화력발전시설 있는 강원, 충남, 전남과 대정부 공동건의 -
-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 추진 건의문 전달 -
- 박 시장, 탄소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인천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9일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 추진토록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인천 등 4개 시도는 화력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탈석탄이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된 건의문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탈석탄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은 2017년 제2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창립됐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유럽연합(EU)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우리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흥화력발전의 조기폐쇄가 필요하며, 현재 수립중인 2050 탄소중립 전략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반영해 탄소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는 2023년에 개최될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인천에서 유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붙임> 사진자료 및 대정부 건의문



탈석탄 동맹 가입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대정부 건의문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문제로써 기후 위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수 많은 사람들은 위험에 빠지고 국내 총생산은 급격하게 감소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놀라운 경제발전을 견인하였지만 자연과 일부 특정 지역의 희생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 시설이 소재한 지역은 인근 대도시의 전력공급을 위해 전국 화력발전소가 밀집되면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지역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가해자이면서 최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탈석탄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내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하고 있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 추진을 건의합니다.

2021. 9. 8.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박남춘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최문순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양승조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김영록